

大學圖書館의 機械化問題

金 世 翊
(梨花女子大學校 圖書館學科 敎授)

—1969年 9月 11日 韓國外國語大學에서 있었던 第8回 大學圖書館大會에서 行한 講演의 草稿를 간추린 것이다—

1. 圖書館 機械化 問題의 背景

紀元 前 數千年 前부터 存在하였던 圖書館은 그것이 비록 우리가 認識하고 있는 近代의 意味의 그것과는 相當한 거리가 있는 것이기는 하나 人類의 歷史와 더불어 끊임 없는 發展을 거듭하여 文化 文明의 創造의 發達에 至대한 貢獻을 해 온 것은 事實이다. 그동안 圖書館은 많은 변모를 거듭 하였고 現在도 그것을 계속하고 있다. 도서관의 本質의 使命이 基本的 機能에 있어서는 變質이 없었으나 圖書館奉仕의 手段과 方法은 發展을 거듭하였고 지금도 그것이 強要 당하고 있다. 實로 圖書館奉仕의 樣相은 그와 같은 변모하는 發展의 過程에서 把握되지 아니하면 안된다. 그러한 時間的 經過 속에서 圖書館은 언제나 人類文化 創造의 기틀로서의 구실을 擔當해 왔다.

그러나 冷靜히 생각해 볼때 우리가 現在 所有하고 認識하고 있는 圖書館은 書庫라는 一次 文獻資料의 空間的 集積을 中心으로 하여 그 資料를 어떻게 貸出하는 가를 重要課題로 삼고 있는 그 資料는 知識, 情報가 記錄된 物體로서만 認識 되고 있다. 그러나 20世紀를 맞이하여 研究活動의 量이 大幅 增大되었으며 그 研究活動에서 生産된 情報量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아 졌다. 가령 예를 들자면 全世界에서 發行되는 學術研究 專門雜誌만 해도 約 5萬種이고 그중 化學關係의 學術雜誌만도 8,000이 넘는다. 그 속에 게재된 아티클은 몇개이며 그와 같은 個個의 論文 속에 包含된 크고 작은 情報資料는 그야말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이것을 情報의 洪水時代라고 말한다. 또한 科學技術 研究가 世界的인 規模와 視野에서 이루어 지고 科學技術 情報에 對한 要求가 國內의이 아니고 汎世界性을 띄고 있음을 우리는 안다. 어느 特定分野의 專攻者가 研究者는 다른 分野에서 進行되고 있는 知識를 吸收 利用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學問의 分割作用이 甚해져

서 새로운 研究 分野가 계속해서 생겨 나고 있으며 研究 態度도 個人 研究에서 共同 研究로 組織의이고 大規模 研究로 科學的 데이터나 知識이 가지가지 機械의 도움으로 보다 迅速하게 入手되고 있다. 美國의 아포르 研究가 그 가장 顯著한 例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現實을 考慮할 때 우리가 現在 하고 있는 圖書館奉仕나 活動 機能으로서는 복잡한 情報處理가 不可能하게 되었음을 認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情報의 意圖의 處理와 情報流通 機構의 再整備가 必然의으로 要求되게 되었다. 世界 圖書館界의 큰 이슈로 登場한 圖書館奉仕의 機械化 問題가 우리 나라에서도 關心을 모으게 된 것은 當然한 일이라 아니 할 수 없다. 辭典의 目錄에 있어서의 著者名, 書名 主題名에 依한 檢索이나 分類目錄에 있어서의 主題 檢索이나 刊行物 記事索引에 依한 情報 檢索의 方法으로서는 이와 같은 情報의 洪水時代에 對處하기 어렵다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우리는 무엇인가 새로운 方法을 모색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2. 圖書館 機械化의 두개의 概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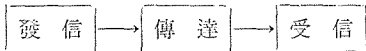
우리는 傳統的 圖書의 價値를 過少評價하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것은 過去 數千年 동안 人類文化 創造의 기틀이었고 現在도 그렇다. 다만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現代의 情報生産, 流通過程을 考慮할 때 傳統的 圖書館奉仕에 「푸라스, 알파」가 있어야 하겠다는 것이다. 이 알파가 「圖書館의 機械導入을 意味한다는 것이 筆者의 立場이다. 이 點에 對하여 美國에서 相反된 立場과 論爭이 激甚하다. 傳統派, 機械派, 철충派, 大體로 세가지로 나눌수 있는데 筆者의 경우는 이 中間的 절충派의 立場에 서는 것이다. 이것은 또 韓國圖書館의 立場이어야 한다는 것이 筆者의 認識이다.

韓國의 圖書館 機械化는 두가지 면에서 考慮되고 推進되어야 한다. 그 하나는 圖書館奉仕 手段의 機械化이며 다른 하나는 情報檢索의 機械化이다. 우리가 傳統的인 圖書館의 存在價値를 認定하는 立場에 선다면 우리는 現在 이루어지고 있는 多樣한 圖書館奉仕의 手段과 方法을 機械化해야 한다. 또한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情報檢索의 機械化의 基礎가 되는 것이다. 圖書

館은 蓄積된 資料를 利用者에게 迅速하고 正確하게 提供하는 것을 그 基本 使命으로 하고 있다.

圖書館奉仕의 手段을 機械化 하므로서 그 機能發揮에 박차를 加하게 되기 때문이다. 圖書注文過程에서부터, 오더 카아의 소오팅 매신에 依한 處理부터 貸出事務에 있어서 圖書請求票 대신 차아진 매신의 導入, 書庫와 카운터 間의 콘비어施設 或은 튜브 씨스팀의 導入, 하다못해 書庫의 리프트 施設 등이 이에 屬할 것이며 또한 복사 시설과 마이크로 施設 등은 緊急을 要하는 問題이다. 그리고 整理過程에 있어서의 手書를 타이푸라이터로 바꾸는 문제, 카아의 複寫等 모두 이에 屬한다. 이와 같은 것 중에 이미 우리나라에 導入된 것도 더러 있고 점차로 導入되는 과정에 있기는 하나 이것이 一般化 될 때 書庫에 蓄積된 一次資料를 奉仕의 中核으로 삼는 이른 바 傳統的 圖書館奉仕의 機能을 보다 效果的으로 發揮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基本姿勢가 어느 程度 確立 될 때 비로서 컴퓨터를 主軸으로 하는 情報檢索의 機械化 即 圖書館의 近代化가 이루어 질 것이다. 다음은 圖書館의 큰 이슈로 登場한 情報檢索의 機械化 問題인데 이것은 本來 컴퓨터가 圖書館을 위해서 만들어 진 것은 아니며 圖書館이 인포오메이쑤 센터의 구실을 名實 共히 하자는 것이다. 情報라는 것을 Winer에 依하면 우리가 外界에 適應하기 위하여 行動하고 그 調節 行動의 結果 무었을 感知할 때 우리가 外界와 交換하는 것의 內容에 對하여 붙인 名稱이다.

情報는 말하자면 Communication의 傳達의 實體이다. Communication 傳達의 패턴은 협의로 解釋하면 다음과 같다.



이것을 情報管理面에서 分析하면 아래와 같다.

生産된 데이터가 分析되고 이것이 論理的인 整理過程을 거쳐서 그 데이터 利用者에게로 가서 하나의 Idea 或은 Fact로서 또 다른 새롭고 發展된 데이터로 再構成 되는 것이다. 從來의 圖書館에서는 이 分析과 整理, 傳達 過程에서 File, Index, Cataloging, Classification

등의 手段을 써 왔지만 이 部分을 機械化함으로써 그 分析의 深化, 整理의 細分化, 스피리트있 된 傳達를 期하자는 것이다. 이 일을 컴퓨터가 擔當해 줄 것이다.

그리고 情報傳達의 媒體(media)를 보더라도 過去에서 個人對 個人的 關係에서, Communication이 傳達되었다. 이것을 Personal Communication이라고 부르는데 近代에 와서는 Mass Communication의 發達에 따라 또 情報生産의 洪水時代를 맞이하여 이것이 Personal에서 Impersonal로 變했다.

多様多數의 情報의 生産자가 그 情報의 受信者 或은 利用자가 누구인지 모르고 또 受信者도 自己가 必要로 하는 情報가 누구에 依해 生産되고 發信되는지 알수 없게 되었다. 이것을 Impersonal Communication이라고 부를 수 있다.

情報管理를 主軸으로 하는 새로운 圖書館은 이 random 狀態에 있는 情報를 適切하게 配布하는 作業을 해야 한다. 即 Impersonal한 情報를 personal 情報로 奉仕하는 것이 새로운 圖書館의 일이다.

情報知識의 理解라는 것은 情報 生産者의 經驗의 場(Field of Experience)와 情報 利用者의 經驗의 場이 서로 오바랩(overlap)하는 部分에 있어 共通의 經驗으로 理解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오바랩하는 部分의 面積을 넓혀주는 일이며 이것을 위해서 從前의 圖書館 奉仕 手段에 더하여 機械的 處理問題가 登場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事實에 對하여 危心을 가질 必要는 없다.

곧 到來할 컴퓨터時代(이미 왔는지도 모르겠다)를 맞이하여 圖書館에도 그것이 導入될 것이다. 그와 同時에 「라이부라리 테크니션」 即 프로그래머나 오페레이터도 圖書館에 들어 올 것이다. 우리는 圖書館의 本質을 理解하고 있는 限 컴퓨터 時代에 곧 適應될 수 있기 때문이고 數千年동안 구축해 온 우리의 立場이 發展해 나갈지언정 無로 돌아가는 일은 決코 없기 때문이다. 예나하면 圖書館은 이미 많은 變化와 發展을 거듭해 왔고 컴퓨터에 依한 情報處理도 그 變化와 發展의 過程 속에서 把握될 수 있기 때문이다. 世上은 變할 것이다. 圖書館도 變하지 않을 수 없다.

(6面에서 續繼)

③ 韓國書誌事業을 위한 國庫補助 增額 要望

④ 現行 圖書館法의 改正 要望

學校圖書館

① 國民學校 教育의 正常化를 위하여 圖書館教育을 擔當 할 國民學校 司書教師 資格基準의 制定 要望

② 中·高等學校의 擔當 司書教師 TO의 增配를 要

望

③ 學校圖書館 教育, 行政을 擔當 할 獎學體制의 確立을 要望

④ 國家的인 規模에서 學校圖書館 教育發展을 위한 法의 整備 및 綜合計劃의 樹立과 實施를 要望